

## 소공동체를 통한 본당 쇄신과 변화

### I.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 II. 본당 쇄신을 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적 기초

1. 하느님 백성 교회론
2. '친교'(Communio)의 교회론

### III. 소공동체로 엮어진 본당 공동체를 향하여

1. 먹여주는 교회
2. 사목협의회 중심의 교회
3. 자각하는 교회
4. 단체 중심의 교회
5. 소공동체로 엮어진 공동체

### IV. 소공동체의 특성과 역할

1. 소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
2. 본당에서의 소공동체 역할

### V. 소공동체를 통한 통합사목적 접근

1. 영성적 통합
2. 사명적 통합
3. 구조적 통합

# 소공동체를 통한 본당 쇄신과 변화

전원 신부

서울 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담당

소공동체 사목 전국협의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대부분의 가톨릭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곳이 본당이다. '본당은 바로 교회의 신비가 현존하고 활동하는 곳이다. 본당은 주로 어떤 조직이나 지역 또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오로지 "한마음으로 결합된 형제적 가정, 하느님의 가정"이며... 성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5.2)

'본당(parish)'의 어원은 "옆에 사는 사람", 즉 이웃이며 이것은 때로는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는 그 지역의 본당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본당은 하느님 앞에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할 뿐 아니라 반대로 그 지역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을 대변하는 장소이다. 본당은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적 표지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써 본당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고 교회의 정체성을 실현하게 된다. 본당의 쇄신과 변화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의 이해에서 시작되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다.

## 1.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정체성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신원의식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에서 나의 행위가 드러난다. 반대로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사명은 그러한 관계를 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왜곡된 사명을 낳는다. 교회 역시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명이 결정된다.

가령 중세 교회를 거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무가치함에 초점이 있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분이셨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나약한 인간성을 가진 죄인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사명은 초자연적 삶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교회 역시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교회의 정체성은 하느님 구원의 성사로 남아 있는 것이었다. 교회의 성사는 하느님 은총의 근원이고 그것만이 허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신도들을 악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하고 명령하는 그들의 권위 있는 스승이 되는 것이요, 성사의 은총으로 신도들을 먹여주고 양육하는 신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신도들이 교회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의존적인 아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은 후대 복음적 성찰에서 생겨난 예수의 신적 이해보다 그분의 인성에 초점을 둔 역사적 예수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분의 말씀과 삶의 방식, 사람들에게 준 영향과 운동 등 인간 존재로서의 예수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의 발견은 본당의 정체성과 사명의 기초가 된다.

예수의 정체성은 당신이 '아빠'하고 부른 하느님과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아라메아어로 아빠, 아버지는 충만하고 아주 깊은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그분의 거룩한 권능 때문에 감히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수 없는 늘 멀리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는 오히려 이런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하느님에 의해 보내진 아들로써 예수의 자기 정체성은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 뜻에 따라 지상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갈자진 이들 가난한 이들을 연대하게 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는 차별, 억압, 소외, 소유, 권력, 불의가 설자리가 없음을 선포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이 현재 통교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느님과 세상의 친교(communitas)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느님 구원의 현존이다. 개인과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과 불의, 억압을 극복하고, 죽은 모든 것에서 생명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하느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얼굴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영역이나 개념,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관계이며(metanoia), 우리 삶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빠라고 부른 그 관계에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그래서 변화의 힘(transforming power)을 체험하고 그것이 목적하는 근본적 방법을 살게 한다.

따라서 하느님 자녀로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며 세상에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 세상의 차별과 버림받은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오히려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인간 존재의 참된 가치를 회복시켜 줄 때 하느님 나라는 현실이 된다. 마더 테레사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 밥 한 끼 먹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보고 그것을 들어올려 준데 있는 것처럼, 고통과 상처의 세상에서 유한성(liminality)를 가진 나약한 인간 존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 된다.

과거는 오로지 우리가 가진 유한성과 나약함이 교회를 통해 용서와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고 격려하는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더 필요로 한다. 인간 존재의 유한성의 체험은 자신과 하느님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는 시작이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내가 치유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삶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은 이를 공감하고 나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삶을 나눔으로써 가장 깊숙이, 직접적으로 서로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유한성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 공동체가 형성되며 예수님처럼 아파하고 하느님을 부르는 형제자매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발생한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당신이 아파로 부른 하느님과 관계 안에 놓여있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도 바로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서로에 대한 관계를 체험하고 살도록 돕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교회성을 드러내는 교회법적 사목구를 본당이라 할 때 본당의 정체성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고 경축하는데 있다. 아빠 하느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시듯이 우리 자신들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교회를 체험하는 곳이 본당이다.

## II. 본당 쇄신을 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적 기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후 AD 30년경 오순절은 지상에 그분의 사명을 실현할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날이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친교의 빵을 나누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생활을 하였다.(사도 2,46)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도들의 권위 아래 신앙의 새로운 형태로써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당시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세와 성체를 통하여 불림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자신들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 모임 또한 '성도들의 친교'(Communio Sanctorum)라 이름하였다. 그들에게는 생생한 부활체험이 있었고 공동체에 팽배해 있던 '대기임박사상'과 사림과 섬림 나눔의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만남과 친교는 당시 외부 세계의 어떤 위협과 박해를 견디기에도 충분한 영적 힘으로 충만해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불림받은 친교 공동체였고,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며 생생한 성령의 감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여기에는 형식적인 원리에 정초한 제도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신비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생생한 부활체험과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며 모인 사도시대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들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실천적 갈등을 겪게 된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각지로 흩어진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질의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접하게 되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교회의 일치와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점차 제도와 규범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특히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은 교회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형태를 더욱 공고히 했다. 더욱이 그리스도교의 국교화에 따른 급속한 교회의 성장과 정교일치는 주교들로 하여금 자기 지방의 행정권을 갖게 함으로써 교회도 로마 제국이 이룩한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행정 분할과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어 받았다. 따라서 성직자는 공적 품위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교회의 가시적 제도 역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외형적 조직과 제도가 강조되고 여기에 소여된 세속적 권한들이 마치 천상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처럼 이해되면서 성 벨랄미노(R. Bellarminus, 1542-1621) 추기경의 표현처럼 “교회는 프랑크 왕국이나 베니스 공화국 같은 가시적이고 구조적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결함을 가지지 않는 “완전사회(societas perfecta!)”로 이해하기에 이른다.<sup>1)</sup>

교회가 정치적 사회와 유비적 형태로 묘사되고 교회의 형식요소가 역설됨으로써 피라밋 형의 제국적 사회제도가 교회의 근간이며 이러한 교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받아들이는 교의를 제1차 바티칸 공의회(Vatican Council I, 1869-1870)를 통하여 확고하게 문헌화하고자 하였다.<sup>2)</sup> 비록 공의회는 프랑스 왕국과 독일의 프러시아 왕국 사이의 전쟁의 발발로 교황의 무류권만을 선포한 채 폐회를 해야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탁받아 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는 계층과 이에 종속되어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평신도 계층의 이분화된 교회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교황 요한 23세(Johannes XXIII, 1958-1963)가 소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등 제 3세계 지도자들과 진보적인 서구 교회 신학자들까지 대거 초대된 그야말로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첫 공의회로써 특히 교회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교계제도로 보고자 했던 공의회의 시도는 ‘하느님 백성’과 ‘친교 공동체’라는 새롭게 재발견한 개념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의회가 끝난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개념들은 교회의 존재 방식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 1. 하느님 백성 교회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적 표상인 하느님 백성 개념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에

1) Frans Jozef van Beeck, *Catholic Identity After Vatican II: Three Types of Faith in the One Church*. (Chicago: Loyola Univ. Press, 1985), 24-25 참조.

2)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의 불평등한 사회이다. 이것은 신자들 중에서 한편은 성직자적이고 다른 한편은 평신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한편의 신자들에게는 성화하며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주어져 있는데, 다른 편의 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전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심상태, “사제직의 교의 신학적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3 (1990.6) 93.

대한 토대를 확립하고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의 획기적인 위상 변화를 이룩한다.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가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소집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sup>3)</sup>이라고 규정한다. 이로써 교회는 구약 성서의 ‘야훼 가족’(암 야훼)에 단초를 두고 있고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성취에 결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관점을 재고찰 하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규정인 하느님 백성 개념을 다시 교회론의 전면에서 등장시킨다.<sup>4)</sup>

하느님 백성은 다음의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1 하느님 백성은 계약의 백성이고 구원 역사와 관련된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sup>5)</sup>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성사로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뽑아 세우시고 옛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을 계승하여 수행할 것을 명하신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교회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내주는 개념이고<sup>6)</sup> 옛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새 백성 교회에 이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구원 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하느님 백성 개념 안에는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계약의 반려자, 협력자로 선택하고 받아들이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 1.2 하느님 백성은 역사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는 교회를 다른 사회의 일부 또는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체로 완전하며 모든 인간 사회로부터 구별되고 모든 인간 사회 위에 군림<sup>7)</sup>하는 ‘완전 사회’(Societas perfecta)로 규정한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교회를 지상의 공간이나 현세의 시간과는 상관

---

3) 「교회 현장」, 4항.

4) 심상태, “사제직의 교의 신학적 고찰”, 『2000년대의 한국 교회』, 성바오로 출판사, 1993, p345; 전광진, “교회 현장에 나타난 교회 개념으로서의 하느님 백성”, 『현대가톨릭사상』 19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8, pp155-162 참조; Leo Elders 외, 위의 책, pp125-128;

5) 「교회현장」, 9항.

6) 정하권, 『교회론II』, 분도출판사, 1981, pp29-30; 차동엽, 위의 책, pp106-108 참조.

7) 심상태, “전환기의 교회 이해”, 『그리스도와 구원』, pp192-201 참조; 제도주의적 교회관에서 교회는 능동적 주체로 세계는 교회가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객체적 대상으로 간주되며 교회는 하느님의 직접적 행위를 통하여 설립되고 하느님과 세계 사이에 일종의 중재자로 생각된다. 하느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계로 오고, 세계는 인간들이 교회를 믿고 가담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한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로 다가간다.

없이 초연히 존재하는 정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로 이루어진 역사상의 하느님 백성임을 드러낸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고 신앙 속에서 받아들여지며 사랑 속에서 구현되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고정된 정적인 실재가 아니라 늘 역동하는 새로운 발생이다.<sup>8)</sup> 이렇듯 교회의 본질은 오직 교회의 역사 안에 있으며 현실 교회는 비단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발생하는 가운데 존재한다.<sup>9)</sup>

또한 하느님 백성 개념을 통해 교회가 고정 불변의 실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실재 이면서 완성을 선취(先取)한 존재로서 완성을 향해 순례하는 역사적 실재임을 강조한다.<sup>10)</sup> 교회는 언제나 정화와 쇄신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교회로서 항상 다시금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도상(途上)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아 시간의 흐름을 넘어 완성될 교회로서의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재확인한다.<sup>11)</sup>

### 1.3 하느님 백성은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정의함으로써 교회는 장소나 제도,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실체로 드러난다. 하느님 백성은 인격성을 띤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 나타난다.<sup>12)</sup> 교회는 전 인류를 향해 열려 있고 전 인류를 포용하며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표현되고 이 뜻에 따라 모인 신앙인들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하느님 백성으로 정의되며 인격적으로 이해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다.”<sup>13)</sup>라는 표현에서 잘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부르신 하느님의 백성인 인간이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행위의 대상만이 아니라 교회 행위의 주체로서 바로 ‘교회 자체’이다. 이 우리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를 말한다.<sup>14)</sup>

8) 발터 카스퍼, 위의 책, pp134-135; 차동엽, 위의 책, pp167-168 참조.

9) 한스 쾨링, 위의 책, pp24-28. 91-93 참조.

10) 「교회헌장」, 48항; 정하권, 위의 책, pp30-31 참조.

11)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6항; 한스 쾨링, 위의 책, p93; 요셉 라쟁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II”, pp59 이하 참조.

12) 「교회헌장」, 4항.

13) 교회를 인격체와 동일시하는 관점은 1946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진술된 바 있다. 교황 비오 12세, “새 추가경들에 한 담화”, 1946년 2월20일, AAS 38, 1946, 149: “신자들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일선에 서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인간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교회란 모든 사람의 으뜸인 교황의 지도 아래 그리고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들의 지도 아래 있는 지상의 신자 공동체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에서 재인용.

14) 사목헌장, 1항 참조; 이제민, 「교회, 순결한 창녀」, pp61-63; 박양운, 「바티칸 공의회 신학 개설」 가톨릭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확실히 아무도 “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가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한다.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sup>15)</sup> 하셨기 때문이다.

#### 1.4 하느님 백성은 평등성을 지닌다.

평신도를 뜻하는 라틴어 용어 ‘laicus(λαϊκος)’<sup>16)</sup>는 백성을 뜻하는 그리스어 ‘라오스(λαος)’에서 유래한 말로 1세기 교황 클레멘스의 서한에서부터 부제나 사제와 구별되는 보통 신자를 지칭하는 말로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4세기 들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종교가 되면서 성직자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고 평신도는 점차 성직자와 다른 계층으로 폄하되기 시작하며 8세기 이후에는 교육 언어인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전례를 따라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청중, 비전문가, 무식자, 바보, 문외한, 속물 등으로 비하되기에 이른다.<sup>17)</sup>

트리엔트 공의회 문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세 이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상하의 수직적 신분 관계로 완전히 구별된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처럼 대조적 신분의 교회 구성원으로 파악되는 상황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신분 때문이 아니라 성직자가 갖는 성화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 때문에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없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전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고<sup>18)</sup> 진술한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하느님 백성이라는 일원적(一元的) 근원으로 설명함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질적 차원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교회 구성원의 평등성을 회복하게 된다.<sup>19)</sup>

신앙인이면 누구나 다 하느님 백성이다.<sup>20)</sup> 물론 하느님 백성 안에도 공동체 내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있다.<sup>21)</sup> 그러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이 동등성은 다른 구별보다 선행한다.<sup>22)</sup>

---

판사, 1969, pp33-34 참조.

15) 교회헌장, 9항; ; 요셉 라쟁거, 위의 책, p64; 한스 쾅, 위의 책, pp42-44 참조.

16) 이 말은 신약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일반 그리스어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되는 자격없는 대중이자 낮은 백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7) 심상태, 「제삼천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 바오로딸출판사, 2000, pp56-58.

18) 1908년에 반포된 교황 비오 10세의 교서 *Haerent animo*의 한 문장에서 사제직과 평신도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강조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교황은 사제와 평신도의 차이를 “하늘과 땅 사이처럼이나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

19) 정의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된 평신도 사도직”, 「사목」 117호(1987.5), p11 참조.

20) “하느님의 백성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위 문헌, 30항.

21) 위 문헌, 7항 참조.



### 1.5 하느님 백성은 모두 보편 사제직의 직무를 갖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하나의 제도로 이해되었기에 성직자들은 평신도와 교회를 관리하는 사목의 주체가 되고 평신도는 사목의 대상이 되는 이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sup>23)</sup> 따라서 성직자는 전권적 관할권을 지니고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게 되고 평신도는 가르침과 성화, 그리고 형법상의 제재 조치를 포함한 관할권의 통치를 받게 된다.<sup>24)</sup>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까지 소홀히 여겨오던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교회 현장의 하느님 백성 개념을 통해 평신도와 수도자, 성직자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한 형제라는 것이 강조되고<sup>25)</sup> 하느님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하느님) 나라, 내(하느님) 백성”<sup>26)</sup>으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여할 자격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7)</sup> 이는 다름 아닌 ‘보편 사제직’에 대한 천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게 되고<sup>28)</sup> 이를 근거로 모든 신자가 교회의 성장과 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위촉받고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다.<sup>29)</sup> 모든 신자가 수행하는 보편 사제직이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부차적인 사제직이 아니라 본연의 실질적 사제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 1.6 하느님 백성은 비가톨릭인들을 포함하는 보편성을 갖는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치푸리아노(Cyprianus)의 진술이 교회론의 제1명제로 통용되어 오다가 스콜라 신학에 의해 본래 의미가 왜곡되면서 가톨릭 교회만이 인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유일한 교회로 간주되고 타종교는 정복되고 극복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sup>30)</sup>

1943년 교황 비오 12세가 발표한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에서도 세례와 올바른 신앙 그리고 교회와의 법적인 일치 세 가지가 교회 구성원의 전제 조건으로 명문화되

22) 위 문헌, 10항; 한스 쾰, 위의 책, p85; 심상태, “사제직의 교의 신학적 고찰”, pp345-349; 심상태, 「제삼천 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 pp52-65; 이제민, 「교회는 누구인가」, p265 참조.

23) 이제민, 위의 책, p182 참조.

24) 심상태, 「2000년대의 한국교회」, pp343-347 참조.

25) 정은규, “평신도직의 재발견”, 「신학전망」 6호, 광주가톨릭대학교, 1969, p3; 김몽은, “평신도 재교육의 필요성”, 「사목」 41호 (1975.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2 참조.

26) 출애 19,6; 2베드 2,9.

27) 1베드 2,5-10; 사도 1,6; 로마 5,10 참조.

28) ‘교회현장’은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한다. 10. 11. 12. 34. 35. 36항; 「평신도 교령」, 2. 9. 10. 22. 31항; 「선교교령」, 15. 21항 참조.

29) 「교회현장」, 30-38항, 「평신도 교령」, 1-8항 참조.

30) 정하권, 위의 책, pp100-105 참조.

어 비가톨릭인은 교회의 구성원에서 완전히 제외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현장의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을 ‘결합된’ 존재로서 파악하고<sup>31)</sup> 또한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관련된’이라는 말로<sup>32)</sup>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보편성을 천명한다. 이로써 타종교의 진리를 재인식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33)</sup>

## 2. ‘친교’(Communio)의 교회론

중세부터 근대까지 계속되어온 제도 중심적 교회관에서는 교회를 ‘완전사회’(Societas perfecta)로 여기고 다른 사회와 구분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여겨 가시적인 조직, 법 체계, 지배 집단의 권한을 강조한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학문의 조류에 영향을 받아<sup>34)</sup> 신학계에도 쇄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세기에 이르면서 교회 쇄신의 필요성을 통감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정체성의 문제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교회 쇄신 과정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친교로서 이해하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른다.<sup>35)</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적 차원의 코이노니아(Koinonia) 개념 안에서 친교(communio)의 개념을 사용하고 이 개념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와 하느님과 일치된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표현한다.

친교의 개념은 친교를 이루는 주체에 따라 ‘신적 친교(communio divina)’, ‘형제적 친교(communio fraterna)’, ‘교계적 친교(communio hierarchica)’로 나누어질 수 있다.<sup>36)</sup>

---

31) 「교회현장」, 15항 참조.

32) 위 문헌, 16항 참조.

33) 요셉 라쟁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론II”, 「사목」 107호 (1986.9), pp59 이하; 최윤복, 「한국교회의 소공동체에 대한 고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론을 배경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9, pp15-16; 이제민, 「교회는 누구인가」, pp264-265 참조. “하느님 백성의 이 보편적 일치에 세계 평화를 예시하고 증진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 일치로 부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다 여러 모로 이 일치에 소속되거나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른다.”<sup>1)</sup>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1디모 2,4 참조). 사실, 자기 뜻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sup>1)</sup>

34) 역사학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낭만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역사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명력과 그 내부에 숨어있는 신비라는 측면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35) 독일 가톨릭의 활발한 공동체 논의는 성서신학적 자료를 전거로 논증한 페르디난트 클로스터만(F. Klostermann)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1965년 「원칙으로서의 공동체」(Prinzip Gemeinde)를 출간하였고 이후 몇 년간 이 주제를 다양하게 취급하였다. 차동엽, 위의 책, pp53-56. 159; A. 프란츠, 위의 책, p414-415; 이제민, 「교회는 누구인가」, pp266-268 참조.

36) ‘형제적 친교’와 ‘교계적 친교’는 보편교회와의 수직적 Communio와 지역 교회간의 그리고 하느님 백성간의 수평적 Communio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차동엽, 위의 책, p162 참조.

신적 친교는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의 세 위격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친교를 의미한다. 이 삼위 사이의 친교적 관계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수여하게 되고 인간은 세 위격의 신적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삼위 일체적 코이노니아(Koinonia)는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모습의 출발점이고 예형이며 모형이다. 따라서 교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는 삼위 일체적 친교의 예형을 따라 이루어지고 보존되며 이 친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제적 친교와 교계적 친교는 인간 사이의 친교를 나타내는데 전자가 하느님 백성의 본질적 동등성을 표현한다면 후자는 하느님 백성 안에 주어진 과제를 규정하는 상이성 내지 비동등성을 서술한다. '형제적 친교'에 대해 공의회는 우선적으로 감사의 성찬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믿는 이들의 친교를 묘사하며 교회들 사이의 친교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적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나는 믿는 이들의 친교는 교회들 사이의 형제적 공동체의 삶 안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교회 사이의 관계를 '형제적 친교'로 표현하고 있다.

교계적 친교라는 말은 교회가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교회 주교들과 교황과의 친교, 주교들 사이의 친교, 사제와 부제들과 주교 사이의 친교, 사제들 사이의 친교 등이 교계적 친교에 해당된다. 교회 자체가 하느님의 삼위 일체적이고 인격적인 친교를 원형으로 하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교계적 친교에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계적 친교의 핵심은 형제적 공동 노력과 상호 인정이다.<sup>37)</sup>

교회가 삼위 일체적 친교에 참여한다는 것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교회의 원형이신 하느님 친히 세 위격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38)</sup> 하나의 신적 본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듯이 하나의 교회가 다수의 지역 교회들 안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삼위 일체적 친교는 교회의 삶에 좌표를 제시해 주고 교회가 자신의 목적에 타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교회적 삶과 구조의 원천이자 근본 원리가 된다.<sup>39)</sup>

교회의 삶과 구조의 근본 원리로서의 친교의 삶은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 곧 세 위격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대화(Dialog), 상호 협력(Co-operation), 연대성(Solidarity)이라는 세 개념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sup>40)</sup> 궁극적으로는 공동 책임의 구조를 말한다. 이 세 개념의 근본 정신은 삼위 일체에 원형을 둔 인간에 대한 하

37) 차동엽, 위의 책, pp162-168;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pp63-68; 심상태, 「제삼천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 pp297-310; 유흥식, "2000년대의 교회: 친교의 교회", 「사목」 225호 (1997.1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51-65 참조.

38) "그 세 위격은 바로 Communio의 관계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천인 것이다"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p69.

39) 차동엽, 위의 책, pp161-168; 임병헌, "Communio로서의 교회", pp59-98; 심상태, 「제삼천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 pp297-310; 유흥식, "2000년대의 교회: 친교의 교회", pp51-65 참조.

40) 삼위 일체의 친교를 원형으로 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구는 대화와 참여와 협력에 대한 갈구와도 상통한다.: FABC, Fifth Plenary Assembly, *Final Statement*, #2.3.7 참조.

느님의 사랑,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삼위 일체의 친교에 바탕을 둔 교회의 친교는 교회 존재의 본질이며 교회의 모든 삶과 활동의 근거이다.

교회 탄생의 원천에 삼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친교가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아들이 청하는 것은 모두 들어 주시며 아들은 아버지를 한없이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이에 순명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 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아버지는 아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아들 대신 성령을 보내 주셨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의 친교를 살도록 초대받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다. 하느님 백성 전체,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삼위 일체의 친교에 근거를 둔 삶을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교회 내 모든 신자들은 친교를 실현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sup>41)</sup>

### III. 소공동체로 엮어진 본당 공동체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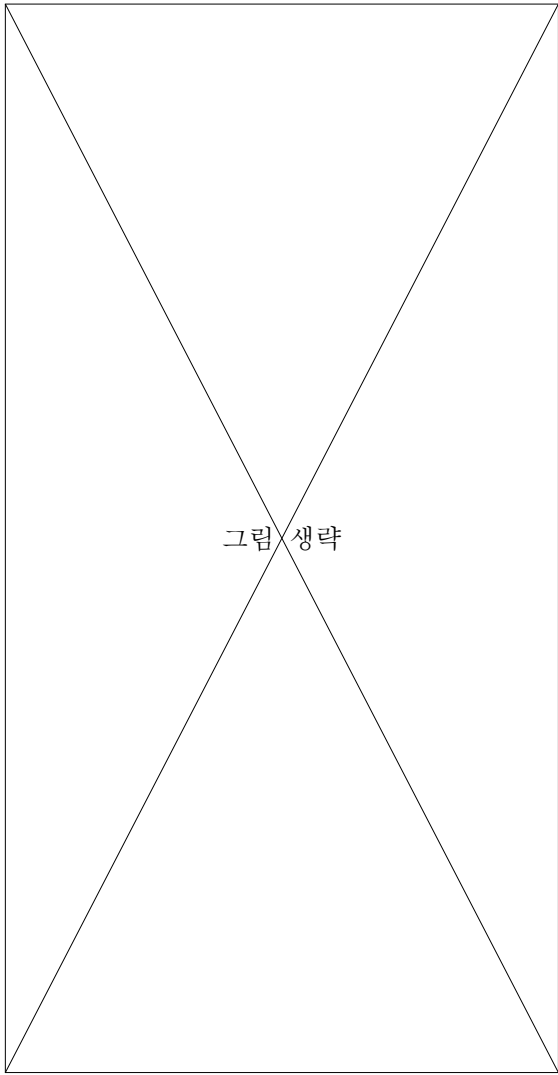
교회성을 드러내는 교회법적 지역구를 본당이라고 한다. 본당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체험되고 개개인은 공동체적 교회상을 통하여 상호 관계 안에서 그들의 신원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본당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본당이 공동체적 체험이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을 산다는 것은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일상의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현존하는지를 나누면서, 하느님과의 유대와 서로에 대한 유대가 깊어진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그분의 현존, 사랑, 연민, 자비, 격려를 경험하면서 공동체로 엮어진 본당이 되어간다.

본당의 친밀하고 사랑 깊은 하느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된다. 오늘날 아시아는 물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지금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소공동체 안에서 발견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소공동체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 양식을 향한 여정임을 체험하고 있다.

본당 성장 5 단계는 이러한 아시아의 비전에 발맞추어 소공동체로 엮어진 교회상을 구현해 가는 과정을 정립하여 생동감 있는 본당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다.

#### 1. 먹여주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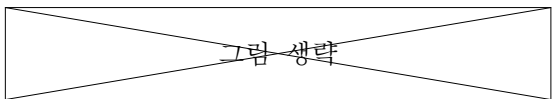
41) 강우일, “AsIPA 2차 총회 기초연설”, 『2001 소공동체 전국모임』, pp201-2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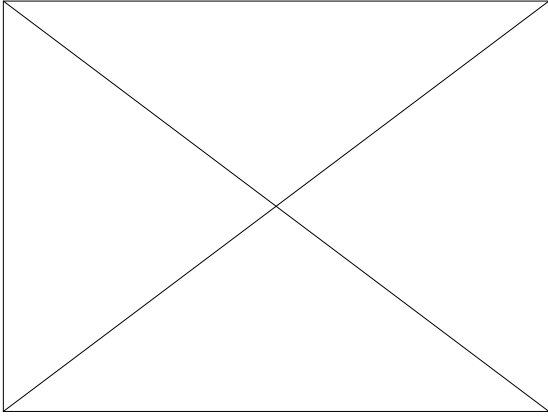
- 1) 사제가 자기 혼자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 독단적이 된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등을 제공해준다. 신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도 한다. 그러한 행위는 가부장적일 수도 있다.
- 2) 이 독단적인 모습은 어떤 본당 수녀나 교리교사와 같은 사목자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 3) 신자들은 수동적으로 사제의 지시를 따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만족한다.
- 4) 단체의 구성원들은 교회 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제들을 돕고 싶어한다. 그들은 본당을 '신부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
- 5) 본당의 모든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제들은 어깨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끝내는 지쳐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 2. 사목협의회 중심의 교회

- 1) 사제와 평신도들이 본당의 여러 가지 일을 토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 2) 사목위원들이 결정내릴 수 있는 책임의 정도는 본당에 따라 다르다.
- 3) 사목위원들은 초기 단계는 단지 사제를 돕는 협조자로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그들은 의식화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 본당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 4) 교회법에 제시된 '사목협의회'란 말은 사목위원들이 사목 직무를 사제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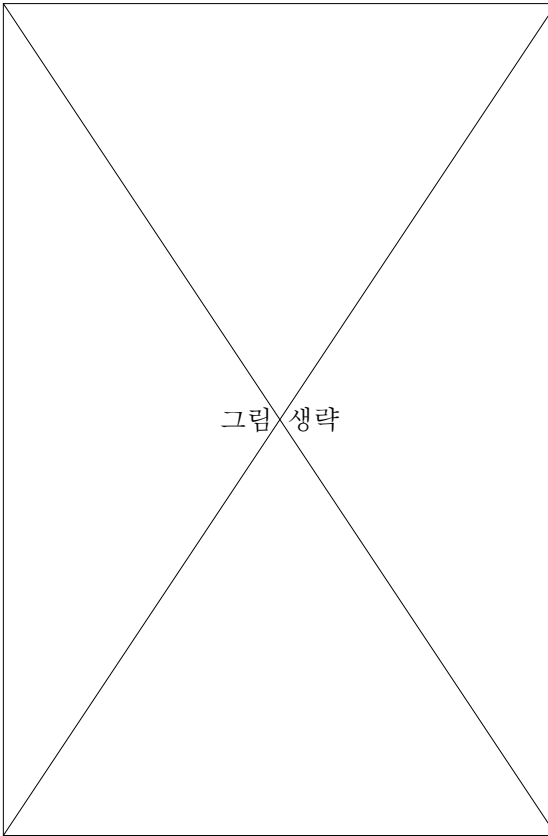
- 5)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목협의회가 교회법에 언급되었다. 이것은 의미있는 발전이며



사목협의회의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사목 실천에 중요한 몫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6) 두 포스터를 비교해 볼 때 우리 본당의 전체적인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불과 10여명의 사람들이 사제와 밀접히 일하고 있을 따름이다. 신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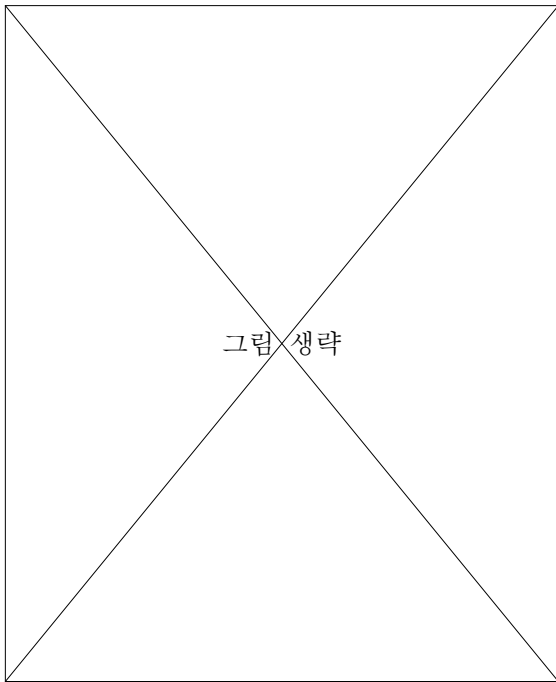
### 3. 자각하는 교회



- 1)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는 신자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 2) 신자들은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따라서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묻게 된다.
- 3)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제나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 일은 어려운 과정이다.
- 4) 사목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문제시되기에 더욱 그렇다. 사제나 수녀, 그리고 수사와 교리교사로서 헌신했던 수십 년의 생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시작된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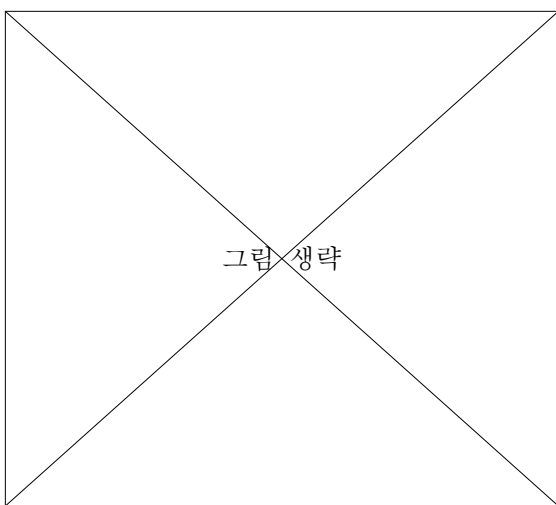
### 4. 단체 중심의 교회



- 1) 이 과정에서 본당은 더욱 활성화된다. 많은 신자들이 서로 다른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본당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본당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위해 일한다.
- 2) 이 과정에서의 중요한 일면은 본당이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단체 중심의 교회는 큰 진전을 드러낸다.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생활에 참여한다. 그들은 성직자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받은 신자로서 그들의 소명을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4) 이것은 교회의 조직적인 형태이다. 사목자들은 많은 신자들에게 활동을 하도록 관리하고 조직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 5. 소공동체로 엮어진 공동체



- 1) 본당의 기본 구조는 소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 모두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다.
- 2) 모든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카리스마를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 생활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 3) 복음 나누기는 소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된다. 신자들의 기본적인 신앙 성장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앙은 또한 많은 본당 활동을 통해서 성장된다. 즉 주일 성체성사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 교리공부, 성서공부 또는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커간다).

- 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부여받은 재능에 맞는 대로 이웃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 5) 이들 소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소공동체들은 본당 사목협의회의 대표들을 통하여 본당 전체와 맺어져 있다.
- 6) 주일에 성체를 영함은 모든 본당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의 성사를 이루는 것이다.
- 7)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

## IV. 소공동체의 특성과 역할

### 1. 소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

소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분리위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 소공동체는 삶의 현장에서 모임을 갖는다.**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성당이나 강당에서 모임을 갖지만 소공동체 식구들은 가까운 이웃과 만나며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만나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돌아가면서 구성원의 집을 방문하여 모임을 갖는다. 모임은 정기적으로 갖는다. 일 년에 한 번 만나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일에 한 번 모인다.

**둘째 : 모임의 기초는 복음 나누기이다.** 함께 성찰하고 나눔으로써 그들은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들은 각자 안에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정기적인 복음 나누기는 공동체의 바탕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소공동체를 이끌어준다. 그들은 네 복음서만을 묵상하지는 않지만, 네 복음서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숙하게 성찰한 결과이므로 네 복음서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권한다. 일단 그들이 이 복음서를 다 묵상한 후에 신약성서의 다른 서간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구약성서를 복음 나누기에 이용할 수 있다. 구약성서는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네 복음서 안에서 만날 그리스도의 인격의 빛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기초적인 복음 나누기 방법은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만든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나와 있다. (「사목을 위한 성서의 사용」 2000년대 복음화 제4권, 「복음 나누기 7단계」 2000년대 복음화 제10권 참조) 단



계적으로 소공동체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삶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다른 복음 나누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복음 나누기의 방법들로는 공동 응답, 보고-듣고-사랑하기, 생활-성서-기록과 의식화 프로그램인 아모스 프로그램, 사회 분석 등이다.

**셋째 : 소공동체는 실천활동을 한다.** 소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외롭고, 병들고, 궁핍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셨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소공동체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기 위해 그들이 사는 지역의 문제에 관계하거나 봉사하는 등 말씀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 소공동체들은 모두 보편 교회와의 일치 안에 존재한다.** 그들은 다른 공동체들을 서로 방문한다. 또 소공동체는 주일 전례를 준비하고 진행한다. 또 그들은 때때로 함께 모여 일하고 의논도 한다. 또한 각 소공동체는 본당과 밀접히 접촉한다. 그들은 본당 사목협의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와 성찰의 피정을 하고 훈련한다. 본당 전담 사목 종사자들은 보편 교회이며 전체 교회인 본당과의 더 강한 유대를 맺도록 하기 위해 소공동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소공동체로 엮어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이상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이 교회의 이상향은 모든 사목 프로그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 2. 본당에서의 소공동체 역할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본당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라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본당의 사명도 예수님의 사명과 같다. 이 사명은 두 가지 차원, 즉 복음화와 해방이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느님의 백성은 우리가 직면한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죄스러움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적 반 복음적 문화를 복음적 힘으로 극복하고 하느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자유롭게 당신의 사명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니는 정체성 때문이다. 소공동체는 바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당의 정체성을 체험하는 장소이며 그 사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육화된 교회이다. 따라서 본당에서의 소공동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소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치유의 영이 세상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 한다.

- \* 소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사랑을 담고 있다. 소공동체는 결코 배타적인 모임이 될 수 없다. 나눔이 모임을 열어줌으로써 모두가 소공동체에 있게 만든다.
- \* 소공동체는 모든 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추구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체험하도록 초대되었다.
- \* 소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정배로서 자신들을 체험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 \* 소공동체는 모임 안에서 사랑과 일치 경험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 양식에 “예”라고 계속 대답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다른 이들은 거기에 이끌린다.
- \* 소공동체는 세상에 일치의 체험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 \* 소공동체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 치유에 대한 증거이다. 즉,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하도록 실제적으로 초대한다.
- \* 소공동체는 사랑으로 싸여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소공동체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언자가 되게 한다.
- \* 소공동체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계속하는데, 이는 인내와 친절, 기다림, 희망에 참,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봉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 소공동체는 다른 이를 위한 봉사에 기여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현존을 실제화 시킨다.
- \*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상처들을 서로 나눌 때 소공동체는 치유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 치유의 경험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체험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준다.
- \* 소공동체는 하느님의 한없는 치유 능력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소공동체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간 역사의 일정한 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 V. 소공동체를 통한 통합사목적 접근

하느님 백성으로서 친교의 교회 공동체 실현은 다른 말로 하면 생동감 있는 본당 공동체 건설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기점으로 재발견된 하느님 백성과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관은 교회 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소공동체로 엮어진 교회상의 구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가장 큰 결

실이며 끊임없이 실현해야 할 미래의 교회 비전으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a new way of being Church)으로 소공동체를 통합적 사목의 중심 주제로 두고 AsIPA 데스크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전례, 성사, 선교, 사회, 문화 환경을 담아내는 소공동체로 엮어진 본당의 통합적 사목 접근은 친교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를 위한 통합의 원리는 크게 영성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 그리고 사명적인 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영성적 통합

영성은 사람이 살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오는 삶의 태도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 모든 창조물과 자신까지도 포함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기에 영성은 상호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응답하는 우리의 노력을 말한다. 오늘날 강조되는 통합적인 영성(integral spirituality)의 기초는 공동체와 각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 영적 성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더욱 깊게 참여하는 것이다. 소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복음의 빛으로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자신들의 삶을 적용하여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다. 소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온통 우리 자신을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투신하게 한다. 결국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선물에 힘입어 우리 자신을 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간다. 소공동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장소요 신앙인들이 영적 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터전이다.<sup>42)</sup>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교회의 선교 사명’은 바로 이런 소/기초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초 공동체가 복음화의 새로운 힘임을 밝히고 있다. 즉 “기초 공동체는 소수의 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와 성경 독서와 교회 공부와 인간적 교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공동 책임을 도출하는 소수 신자들의 집회”로써 “교회의 활력의 표지이고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칙은 이러한 공동체들은 친교로서의 교회에 “더 깊은 친교를 이루는 방법”이 되며 “교회 생활에 크나큰 희망을 가져다주는”것으로 보고 있다.(51항)

회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공동체는 친교와 영성수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들은 각각이 분리,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소공동체는 조직보다는 삶으로,

---

42) Thomas A Kleissler. 외 2, Small Christian Communities: A vision of Hope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Paulist Press. 1997. 34-42 참조.

위에서 아래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함께하며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sup>43)</sup>

작은 공동체가 주는 힘은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시나이 산의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극적인 경험은 아니라하더라도 하나이고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의 경험을 주는 곳이다. 작은 공동체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갖가지 슬픔과 상실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혼자의 고립에서부터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평화를 맛보게 된다.<sup>44)</sup> 따라서 보다 작은 삶의 자리 깊숙이 스며든 마을 중심의 소공동체는 대형화된 본당이 안고 있는 익명성, 비인격성, 탈주체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자각하는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주체적인 상호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이 성숙한 곳에서 아가페적 사랑이 발생하고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며 신앙인에게 교회적인 감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게 된다.

따라서 소공동체는 “개인적이고 형식적이고 계율 중심적이며 신심 위주의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이며 하느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시킴으로써 교회의 친교적 역동성을 살려 내고자 한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어떤 활동단체나 신심 단체 또는 형식화된 제도적 교회 모습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소공동체는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핵심을 지향한다. 즉 소공동체는 교회론적 개념이나 어떤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교회 모습이다. 소공동체가 교회의 영성을 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들의 작은 공동체가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생동감있는 모습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 보편교회의 현존(육화)을 소공동체 만이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 사명적 통합

강우일 주교는 2004년 소공동체 심포지엄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는 열심히 하여 60년대와 비교할 때 신자 수는 6배로 늘려 놓았지만 그들이 성당 문밖에서,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가르치는바와 같이 복음화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힘으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활동, 생활과 구체적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18항)이며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43) Jose Marins & Teolide M. Trevisan., 54-55 참조

44) John English., *Spiritual Intimacy and Community: An Ignatian View of the Small Faith Community*, New York : Paulist Press, c1992. 55 참조.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 사상, 생활양식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로 잡는데 있다.”(19항)고 밝히고 있다.

결국 소공동체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제반 분야에 대한 참여와 도전에 열려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할 수 없지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앙과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정치적 의무를 평가하고 선택에 기꺼이 참여한다. 복음의 빛 안에서 정부의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할 수 있으며 함께 연대하여 환경, 생명, 폭력, 버려진 아이들, 각종 반복음적 환경과 문화에 도전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교회의 존재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만 하는 구급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는 배고픈 자와 고통받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는 문제의 결과에 유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어 그 근본부터 변화시키고자 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일하는데 있어서 정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값싼 동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공동체는 둘러싸여진 반생명적 반복음적 사회 환경 앞에 기꺼이 맞서 예언적 소명을 다하는 사회의 효소가 된다.<sup>45)</sup>

이를 뒷받침하듯 라틴 아메리카의 한 주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교회의 역사는 기초교회 공동체를 언급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초 공동체의 중요성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 사회적 현상이 되고, 예수 공동체의 삶과 선교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 왔으며, 주변의 사회 현상에 직면해서 예언자적 도전 정신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 데에 있었습니다.”<sup>46)</sup>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10여년의 소공동체 성과는 얼마나 신자 수가 증가했느냐, 또는 얼마나 본당이 소공동체를 통해 활발하게 본당활동을 하게 되었느냐를 묻기보다, 신자들이 소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복음적 삶으로 변화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어야 할 것이다.

소공동체 전국 연구 위원회의 제안으로 우리 신학 연구소 박현준 선생에 의해 조사 발표된 의정부 교구 구리 본당의 ‘소공동체 활성화 요인분석을 위한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소공동체에 대한 비전 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생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실천 또한 소공동체의 참여도와 비전의 공유에 따라 크게 높게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7)</sup>

---

45) Jose Marins & Teolide M. Trevisan, Base Ecclesial Communities: The Church on a Small Scale. Claretian Pub., 2002. 75-78 참조

46) 브라질 주교회의 As comunidades eclesiais de base no Brasil. No 79. Nov. 1992. Doc. 15, Mexican Bishops, April 7, 1989. No 3&4. Chilean Episcopal Conference, 1979. Letter to the BECs. 위의 책에서 재인용

47) 박현준, “소공동체 활성화 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 2004년 소공동체 전국 모임 자료, 261참조.

아직 더 많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소공동체가 가지는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적 기능은 객관적 분석과 조사 외에도 소공동체 전국모임이나 사례발표 등을 통해 수없이 보고 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세방값 올리지 않기, 재개발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우선 생각하기, 지역 환경 운동,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등 아직 미미하지만 소공동체가 교회의 사명 수행에 실천적 장소가 되고 있다. 소공동체에 참여하는 빈도와 이해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 관심이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재발견한 하느님 백성의 개념은 세상 구원을 위한 신앙인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고 이러한 참여의 정신은 소공동체를 통하여 자신과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 3. 구조적 통합

#### 3.1 교회론적 구조

아시아 주교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한 친교와 동료의식과 공동책임의 원칙은 우리의 교회 구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교회 내부 구조 쇄신은 지금 있는 교구와 본당의 조직을 강화하고 증강하는 데에 있거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에 있지 않다. 평신도들의 적극적이고 완전한 자발성, 참여였다. 활동을 위해 친교와 동료의식, 공동책임의 올바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있다(FABC Paper,4.5.2, 1986)

아시아 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의 새로운 존재 양식(a new way of being Church)을 향한 본당과 교구의 사목 구조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향하게 된다.

##### 3.1.1 참여적 구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토대를 확립하고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에 획기적인 위상 변화를 이룩한다. 평신도에게도 일반 사제직과 왕직, 예언직이 수여되면서 성직자 뿐 아니라 모든 하느님 백성이 신적 품위와 인격적 동등성을 갖게 된다. 또한 하느님 백성으로 불림 받은 모두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남긴 사명을 수행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목구조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참여적 구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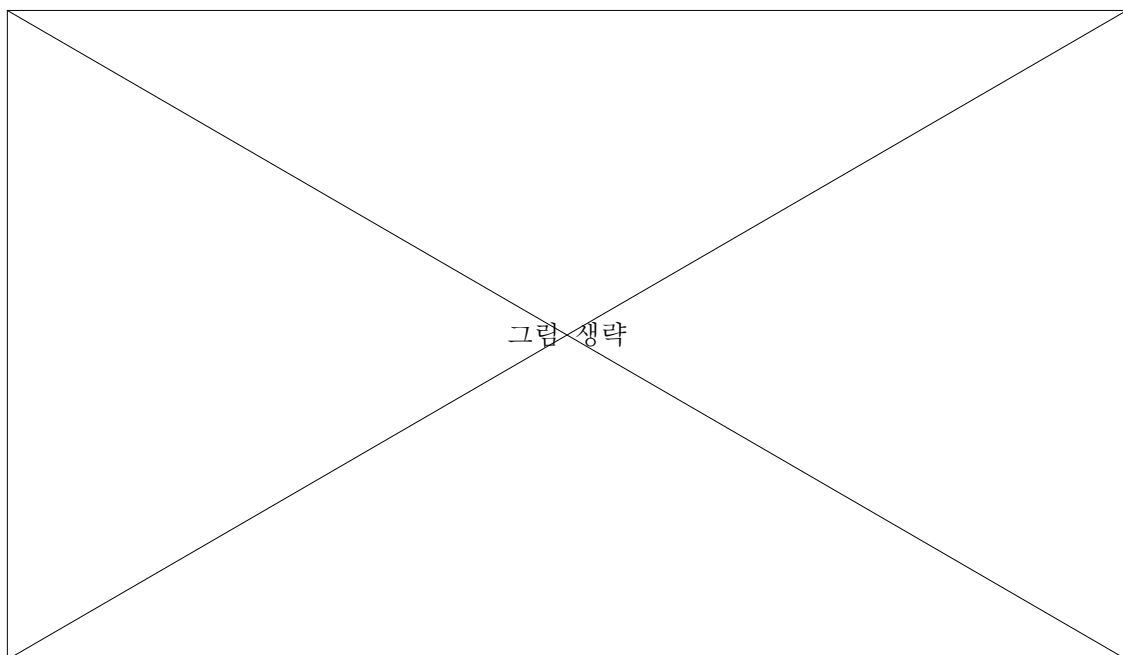
### 3.1.2 친교적 구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적 차원의 코이노니아(Koinonia) 개념 안에서 친교(communio)의 개념을 사용하고 이 개념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와 하느님과 일치된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표현한다. 친교의 개념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세 위격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친교를 의미하는 신적친교, 하느님 백성의 본질적 동등성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나타내는 형제적 친교, 그리고 하느님 백성 안에 주어진 과제를 규정하는 상이성 내지 비동등성을 서술하는 교계적 친교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친교적 관계를 통하여 교회는 그 본질을 손상함 없이 제도적이며 조직적인 친교적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 3.1.3 공동체적 구조

공의회 문헌은 지역 공동체가 하느님의 하나인 백성 전체를 가르키는 저 이름, 곧 ‘하느님의 교회’(I고린1,2; 2고린 1,1등)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게 불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명문화하였다. (교회헌장28항 참조) 이러한 정신에 따라 공동체는 한 지역이나 특정의 소그룹 안에서의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형제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동성이 있어야 하며 일치와 다양성이 가능한 공동체적 구조를 지향하게 된다.

공의회 정신을 살린 교회론적 구조는 아시아 교회에서 본당을 ‘공동체들의 공동체’(community of communities)로 이해하면서 본당의 사목구조가 현장중심, 삶 중심의 사목 형태를 취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공동체로 엮어진 본당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 3.2 교회 구조 원리

차동엽 신부는 교회구조 원리를 교계원리, 협의체 원리, 보조성 원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구성하는 것은 교회의 교도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느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삶 중심, 현장 중심의 사목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말한다.

### 3.2.1 교계 원리

교계원리는 교회 구조 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우선적인 원리이다.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다해도 직무상의 교황-주교-신도의 위계가 있다. 교계원리의 최우선 과제는 교회 공동체의 교도권적 일치와 구원 중재를 위한 효과적 복음 선포에 있다. 이 권위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그리스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교회 직무자들은 권위에 대한 순명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친교적 관계를 성립시키게 된다.

### 3.2.2 협의체 원리

이 원리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원리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법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협의체적 원리는 교회가 시노드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중요한 것은 '참여'와 '의사소통'이다. 협의체적 원리에 의해서 교회내 조직 안에서 팀사목 공동사목의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3.2.3 보조성의 원리

교계원리가 수직적 친교 관계를 말한다면 협의체원리는 수평적 친교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원리의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하위 조직에 그 우선권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교회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관료주의적 지휘계통과 특정 계층의 힘의 독점을 막고 삶의 자리에 가까운 영역의 사목자와 지도자들에게 높은 차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해주게 된다.

## 3.3 일반 조직 원리에 의한 교회구조

조직(organization)이라는 말은 도구(organon)라는 뜻을 가진 희랍 말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조직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도구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조직도 당연히 목적달성(복음화)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를 조직화라고 하여 인적자원과 비인적 자원을 할당하고



배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영 기능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립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교구와 본당의 조직도 이러한 원리가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3.3.1 계선(본원) 조직

최상위에서 최하위의 단계에 이르는 모든 직위가 단일 명령 권한의 라인으로 연결된 조직 형태를 말한다. 군 조직과 같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지시, 신속하고 통일된 실행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선 조직은 교구장-지역교구장대리-지구장-본당신부-구역장-반장에 이르는 하느님 백성의 가장 작은 단위공동체인 구역 반까지 이르는 조직의 지휘계통이다. 이 계선 조직은 교회 구조원리에서 교계원리와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교계적 친교 관계를 이루면서 보편 교회와 일치될 이루어지게 된다.

### 3.3.2 기능식 조직(직능 은사조직)

계선 조직이 의사결정의 오류와 다방면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참여를 이룰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능에서는 계선 조직만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계선 조직의 결함인 여러 분야의 기능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 분업의 형태를 띠는 조직을 기능직 조직이라고 말한다. 이를 교회 안에서는 직능(은사)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능(은사) 조직은 각 조직이 가진 특성과 은사를 계발하고 발전시키면서 교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운영의 묘에 따라 교회 구조 원리는 협의체적 성격과 보조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당의 대부분의 제 단체들이 여기에 속하며 교구에서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 3.3.3 참모조직

계선 조직의 관리 직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스텝을 구성하고 그들의 조사, 연구 기획을 통하여 계선 라인의 활동의 촉진 직능(facilitative function)을 실천하려는 조직형태이다. 스텝 조직은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협의 조언 기관이며 라인으로서의 직접 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모 조직의 활성화는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조직의 관리 통제가 안정적이 된다. 교회 안에서는 사목 평의회와 교구 또는 본당의 제부서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 3.3.4 사업부제 조직

대규모 조직에서 권한 위양에 근거한 분권관리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고객별, 제품별, 지역별, 직능별, 공정별 등 단위 사업부 조직으로 분화하고 의사 결정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그 범위 안에서 모든 부문을 자율적으로 계획, 결정 실행하고 이에 따

른 책임을 분담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특화된 대상별로 전문화를 시키기가 용이하고 대규모 조직에서 관리규모를 적정화할 수 있으며 자율성과 능동성 창의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간접적 선교기관 또는 연구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3.4 조직 관리의 원칙

모든 조직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을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편성 및 구조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칙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회 운영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3.4.1 전문화의 원칙

전문화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zation)이란 조직의 각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한, 단일의 특수화된 업무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전문화에 의해서 개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숙련을 용이하게 습득하게 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육훈련도 용이하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활동이 차별화되고 분류되며 조직구조의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다.

#### 3.4.2 직능화(職能化)의 원칙

직능화의 원칙(principle of functionalization)이란 업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고 부문화(部門化:departmentation)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분업의 원리를 고착화하고 전문화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3.4.3 명령일원화(命令一元化)의 원칙

명령일원화의 원칙(principle of unity of command)이란 한 사람의 부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든지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직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각 구성원의 행위의 통일성과 책임의 일원성을 확보하고 노력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조직원칙이 되는 것이다.

#### 3.4.4 감독한계(監督限界)의 원칙

감독한계의 원칙(principle of span of control)이란 1인의 상사가 직접 유효하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을 위해 관리계층이 증가하게 되면 관리계층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커뮤니

케이션의 라인이 길어져 지시의 전달에 시간을 요하고, 그 사이에서 생략과 그릇된 해석이 생기기 쉽다.

여기서 파생되어 계층단축화(階層短縮化(減少))의 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조직의 계층을 가능한 한 짧게 단축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리계층이 길어지면 최고 경영자와 하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방침 및 지시 전달이 잘 반영되지 못하므로 직무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3.4.5 책임(責任)과 권한(權限)의 원칙

책임과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은 모든 직위에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거기에 대응하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벼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권한과 책임 대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업무수행자가 갈등을 느끼게 되어 성과가 감소되고 조직에는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

#### 3.4.6 조정(調停)의 원칙

조정(調停)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이란 각각 분담된 업무 활동을 경영 활동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서로 조정(調停), 통합(統合)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3.4.7 권한위양(權限委讓)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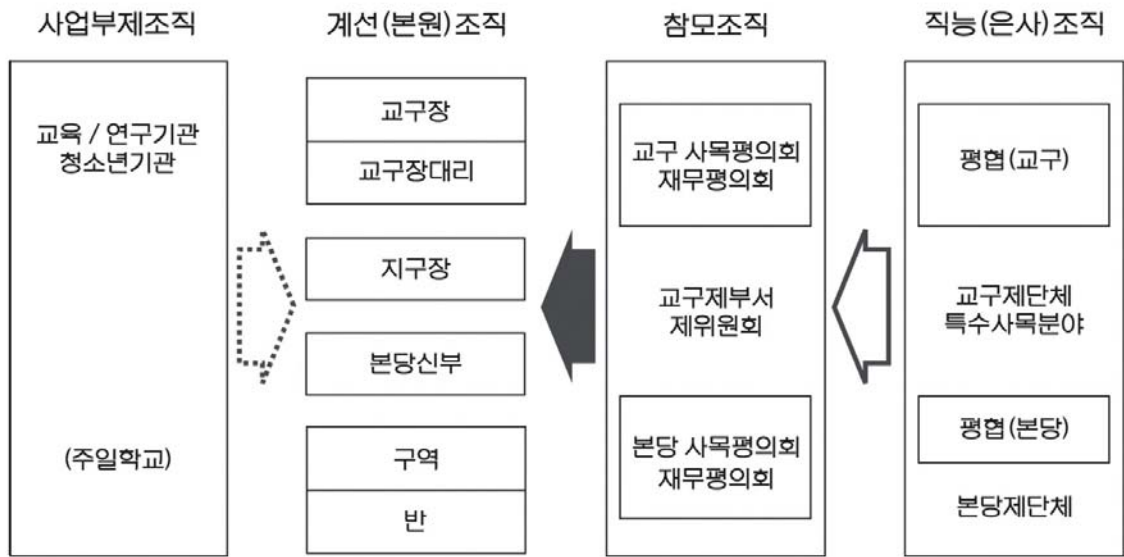
권한위양의 원칙(principle of delegation of authority)은 감독 한계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조직 분화(분업화)에 뒤따르는 것으로 담당 직무자에게 그 수행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 결정과 실행을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다. 권한 위임으로 자율 결정에 따른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창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에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5 교구 본당의 통합적 사목구조

이상과 같이 교회론적 구조와 일반 조직론을 바탕으로 교회사목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직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직화 작업에 따른 조직 원리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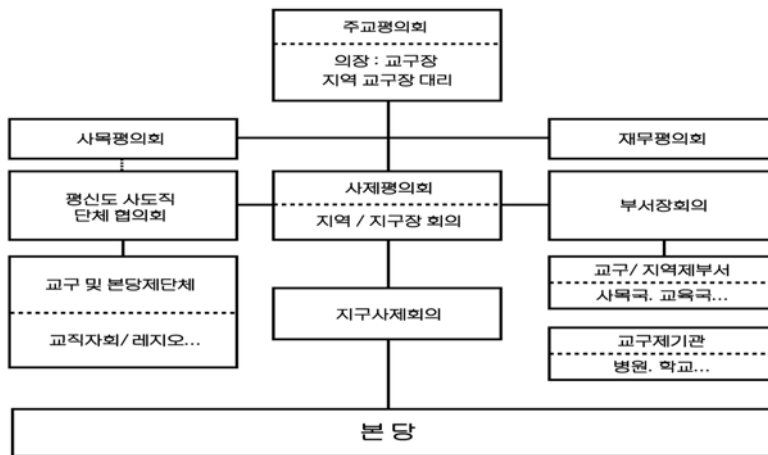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선 조직은 교구장에서부터 삶의 자리인 구역 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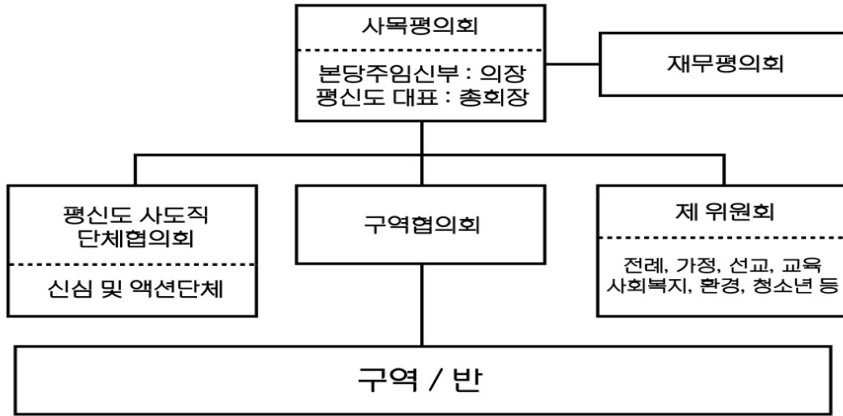
이르는 라인을 통해 교계적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교계적 조직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라인은 가장 가까이에 참모 조직이 있고 제 단체를 말하는 직능(은사) 조직이 있다. 사업부제 조직은 교구 또는 지역(지구)이 가지고 있는 제 기관에 속한다.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독립적인 사업부제 조직 라인에 흡수시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 사목에 대한 이러한 독립적 사업부제 조직과 같은 운영 방식은 젊은 보좌신부에 직무에 대한 의욕과 보람을 붙여넣어 주고 창의성과 효율적 청소년 사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3.6. 교구 본당 사목구조 개념도

사목협의 및 의결 기구로 본 교구 조직  
(통합사목 연구소 제공)



## 사목협의 기구로 본 본당조직 (대구대교구 제공)



## 본당 사목 구조 (구리본당)

